

언어정책의 자주성과 사대성

이현복

서울대 교수 · 음성언어학

이번 서울 올림픽 기간중에 드러난 미국측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보도 자세는 한국과 한국인을 흥분케 하였다. 권투경기장의 소란을 그 원인은 제쳐놓고 문화적인 차이라고 매도하던 미국언론이, 미국선수의 절도사건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릇된 자세와 간섭은 일반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 면에서 작용해 온 것이다. 가령 우리의 말과 글을 다듬고 가꾸기 위하여 우리가 세우는 우리말의 언어정책에 그러한 부당한 영향과 압력이 작용하여 우리의 말·글 정책이 제갈길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보아야 할까?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이 바로 외세와 사대로 말미암은 수난의 대상이었다. 로마자 표기법이란 우리말을 로마글자로 적는 방법을 말하므로 이는 표준말,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과 아울러 한국어 4대 어문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의 언어체계에 맞게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년 전에 새로 공표된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의 체계에 맞지 않는 미국식의 표기법이다. 우리 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심혈을 기울여 다듬어 놓은 표기법을 일거에 폐기하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미 사반세기 전에 버리기로 하였던 미국식의 안이 하루아침에 한국의 공식 로마자 표기법으로 둔갑하게 된 배경을 우리는 외세와 이를 부당하게 비호한 고위당국자의 합작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말은 어이없이 뒤틀리고 파괴되었다. '발'과 '팔'이 구별되지 않고 '전씨'와 '천씨'가 통일되었으며, '장녀'는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죄없는 '동대문'이 '통대문'으로 바뀌고 '동대구'가 '통대구'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영어의 buy를 '파이'로 적어 pie와 구별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 girl을 '컬'로 써서 curl과 분별이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미국식 로마자 표기법이 우리에게 입힌 국가적인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며, 세월이 갈수록 누적될 것이다.

문교부가 수년전 미국식 표기법을 채택 공표할 당시에, 이 표기법은 다가오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잠정적인 안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제 86과 88의 두 체육계전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우리는 우리말의 체계에 맞는 로마자 표기법을 되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는 인류문화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한글이라는 훌륭한 글자를 독자적으로 창안해낸 우수한 자국민족이다. 오늘 다시 시월의 한글날을 맞아 우리는 우리말과 글에 관한 언어정책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세우고 실천해나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나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며, 정부 당국은 약속대로 로마자 표기법의 재심을 통해 자주적인 언어정책 수행의 의지를 나라 안팎으로 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시도 유예할 수 없는 초미의 사안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하겠다.

특집 2 '과학도서' 어디까지 와 있나

4 과학문화의 '뿌리깊은 나무'가 이쉽다 / 朴星來

5 읽을 책이 없나, 독자가 없나 / 金貞欽

6 교양인이 읽을 만한 과학도서

3 인터뷰—한국과학저술인협회 朴益洙 회장

리포트 8 이념 초월한 세계 도서관인의 축제 / 박신석

서평 10 權寧珉 「한국민족문화론연구」—韓 基

金永秀 「한국문학의 맥락」—李明宰

11 제프리 호스킹 「蘇聯史」—安澤源

張德相 역 「채플린 자서전」—李世龍

12 폴 버클리 「물리학의 근본문제들」—金榮德

이운택 「해체, 실천, 그 이후」—원재길

13 임재해 편 「한국의 민속예술」—徐淵昊

이호철 「마침내 '통일잡'은 온다」—朴泰洵

출판화제 14 대형출판사들 월북작가 전집 낸다

15 시·소설·희곡 넘나드는 문인들

확대경 16 통권 200호 맞는 「한글」誌의 발자취

이색논문 18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언어현상

저작구상 9 「勞動과 思想」 / 車仁錫

작품구상 19 장편 「時間의 뿌리」 / 梁文吉

지금 독서중 20 김학철의 「격정시대」—영화감독 朴光洙 씨

M 린스트럼 「아동미술의 세계」—일러스트레이터 表恩雅 씨

21 나린다 싱 「경제학과 환경위기」—회사원 千仁成 씨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번역가 許貞愛 씨

22 高銀의 연작시집 「萬人譜」—잡지기자 이권우 씨

장그르니에 「일상적 삶」—회사원 權銀順 씨

23 오리아나 팔라치 「巨人과 바보들」—잡지기자 李信淑 씨

지금 편집중 23 「세계프로문학선」 전 35권—도서출판 한마당

컬러화보 24 철학자 조요한 교수의 書架

교양논단 26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해석학' / 朴淳英

세계의 출판 28 엘리엇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外

29 「뉴스위크」 선정 「올 가을에 읽을 만한 책」

새 소식 17 출협공모 '독후감상문' 입상자 발표·외

독자서평 42 권혁수 / 박창호 / 方文淑

김호경 / 김춘화 / 백정욱

實用書코너 30 국내·해외여행의 길잡이 책들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화제의 책

44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독서퍼즐/정기구독 안내